

[필리핀 농식품 관련 기사]

□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 개방

- 필리핀 농림부 관계자는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을 허용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필리핀에 파프리카 수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거에 파프리카 수입이 허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필리핀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 이하BPI)의 Clarito M. Barron이 발표
- 필리핀 농림부에서 한국 제주도에서 생산된 신선 파프리카의 수입을 관장하는 조레인 Administrative Circular No. 1, Series of 2013을 발표. 조레에는 필리핀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체와 가공시설들은 한국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QIA)에 등록해야 하고, 리스트에 등록된 제품들만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음
-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는 수확 이후 48시간 이내에 포장되고, 섭씨 18도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파프리카는 한국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QIA)에 의해 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필리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야채 수입

- 식물산업국(BPI) 보도에 의하면 필리핀 정부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채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며, BPI의 Clarita Barron국장은 “우리는 필리핀 시장이 미국 채소의 증가에 관련한 용인할 수 있는 정확한 양을 결정지어야 한다.” 라고 발표하였음
- 현재 1회 수입허가에 야채 250kg 수입이 가능하며, 최종결정은 필리핀 농무부에서 정함
- 계약에 대한 최종 작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BPI는 수입하기로 계획한 채소들에 대해 병충해 검사(Pest Risk Analysis) 실시함

□ 필리핀 정부, 미국 일반조리용 감자 수입개방 결정

- 미국 감자 유관기관들의 4년간의 노력 끝에 필리핀 정부가 미국산 일반조리용 감자(table-stock potatoes)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
- 이전에는 감자 수입은 필리핀에 칩(chip)으로만 가공되는 감자만 허용하였음
USPB에 따르면 필리핀의 미국산 감자칩 용 감자 수입이 2012년에만 약 280만 달러, 5,600톤 이상의 물량을 기록하면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음. 또한 2012년 냉동감자 수입은 3,800만 달러 수준이었음

□ 필리핀, 신선우유 생산

- 작년 신선우유 생산 12% 증가 목표를 바탕으로 필리핀 농림부는 필리핀 내 신선 우유 생산 증가를 위해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임
- 필리핀 낙농업부 장관 Grace Cenas는 필리핀에는 4만 696마리의 낙농용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12년에는 '11년 대비 200만 리터, 12% 증가한 1,845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였다고 발표

- 필리핀 국내산 우유의 생산량이 지난 5년간 연평균 7% 증가

□ 필리핀, 쌀 수입량 억제

- 필리핀 국립식량당국(National Food Authority, 이하 NFA)은, 필리핀은 2012년 쌀 수입량의 2/3 수준인 21만 4,000톤을 수입
-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이고 그 외 태국, 중국, 인도에서 수입
- 필리핀의 2013년 쌀 수입량은 단경기에 NFA 의 재고량을 보충하는데 쓰일 예정
- 인구증가, 관개시설지원 개선 등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쌀을 자급자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